

지형예술, 생태보존을 위한 예술

LANDFORMING, THE ART FOR AN ECOLOGICAL FUTURE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이론가로 잘 알려진 찰스 젡스가 2013년 4월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순천만박람회)에 조경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순천만박람회는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의 자연 생태 보존과 도시 환경 개발을 동시에 모색하는 행사다. 박람회장 중앙의 호수 정원을 디자인하는 젡스는 지난 3월 박람회와 관련한 심포지엄과 강연 등의 행사를 위해 서울을 찾았다. 「공간」은 젡스를 만나 순천의 자연 생태를 위한 그의 제안과 생각, 그리고 도시 개발에 따른 자연의 변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World-famous architectural theorist, Charles Jencks, who is renowned for his critique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in architecture, visited Seoul in March 2012. He attended symposiums and lectures for his "Holding the Eco-Line" lake-park project at the "International Garden Exposition Suncheon Bay Korea 2013" [Suncheon Expo], which will open in April 2013. The Suncheon Expo aims to address preservation of both natural and man-made environments, such as the wetlands and regeneration of the urban Suncheon area. *SPACE* met Jencks on March 12, to discuss his ecological proposals for Suncheon, his concept of Landform, and about architects' intervention in natural enviro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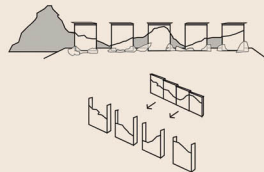
The Lake Park by Jencks Squared in International Garden Exposition Suncheon Bay Korea 2013



Bridge to Bonghwa island



Installation 'Borrowed Landscape'





Cells of Life, Jupiter Artland, Kirknewton, nr Edinburgh, 2003-2010

순천만(박림화)의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제 정원 박람회다. 박림화를 위해 조성되는 생태 정원은 순천시의 순천만 사이 1,527,000㎡ 면적의 부지를 마련되며 저류지, 국제습지센터, 수목원, 박림화장(세계정원+테마 정원) 등으로 구성된다. 저류지에는 평상시에는 호수 공원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저수지로 사용될으로써 도심 저지대의 산습 침수를 예방한다. 생태 정원은 도시가 순천만으로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이곳을 찾은 연 300만 명의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버퍼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박림화장은 소경 경전철(PRT)로 관광역을 도심으로 유입해 이를 통해 음식, 숙박, 관광 산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박림화 용도로 개발되는 부지들은 행사 이후 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스는 20세기 후반부터 매거 케츠와 정스의 작업을 계기로 조경을 시작 했다. 그는 문학에서 다원주의를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로 코르부지에의 풍상 성향을 접한 후 지크르티드 기원과 지도 아래 건축을 공부했다. 이후 영국에서 레이니 맨틀과 신타는 연주를 진행하면서 모더니즘이 단일 일을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의 집합임을 확신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깊어지는 20세기 후반 이후를 포스트모더니즘, 비문적 모더니즘의 시대라 표현하기 시작했다.

정스는 자연을 이용한 자신의 작업을 '지형 예술'이라 말한다. 이는 그가 주창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여 조경, 건축, 조각, 의미와 글이 결합된 다원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는 이번 서울 강연에서 '지형 예술'은 자연에 이용해 자연에 대해 사색하고자 하는 예술이라며, "자연의 조직 능력은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낸다. 인간도 생태계의 한 요소로서 자연과 대등한 관계로 끊임없이 자연과 대화하며 창조 활동을 한다. '지형 예술'은 단일체인 동시에 다변적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순천만 프로젝트에도 자연을 이용해 자연의 궁극적 형상과 법칙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정원을 개편 시 나무 흙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던 한 황산 화산호 프로젝트로 관심을 끌었다. "지형 예술" 작업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생태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Northumberlandia, Newcastle, England, 2005, Construction 2010+ (with Banks Group)

정스가 디자인한 호수 공원은 558,000㎡ 면적의 박림화장의 중심 요소로 호수와 그 가장자리 언덕을, 중앙 섬, 호수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다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순천의 모습을 축소해 형상화한 것이다. 호수의 물은 도시를, 호수를 에워싼 언덕들은 순천을 둘러싼 육연봉, 오봉산의 산세를, 호수 중앙의 섬 봉우리는 봉화산을, 그리고 섬 봉우리를 남북의 땅과 연결하는 다리는 순천을 가로지르는 강을 상징한다. 호수 정원의 다양한 인공 지형은 방문자에게 자연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여러 방법을 제공한다. 사방울은 언덕을 오르면서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다리를 따라 걸으며 여러 각도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도 있다.

정스는 이런 상징적 인공 지형을 통해 '생태 경계의 교수'holding the Eco-Line이라는 주제를 제시한다. '생태 경계'는 그가 한국 도시에서 발견한 자연 경관의 특징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건물이 가득한 도시 바로 옆에 산이 공존하는 대조적인 풍경이 그가 바라본 한국 도시들의 이미지다. 정스는 사물의 낯선 공원을 대표적 예로 들면서, '생태 경계는 이처럼 자연 상태와 경계 사회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자연과 인공의 경계에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생태 경계로 구분되는 환경/도시/자연/문명, 생태/경계/생태의 상반되는 가치들은 단순히 삼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보존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생태 경계를 교수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생태 경계의 교수'라는 주제는 자연 생태에 대한 정스의 디자인 철학을 담고 있다. 건축 활동은 어떤 의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순천의 경우처럼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할 곳을 개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동안 자연 생태 보존을 위한 환경 관련 조약, 법, 규정 등이 소개되어왔지만,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정치·경제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스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건축은 의도적인 요구구현 생태적이나 윤리적으 줄지 않은 일이라고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연 생태 보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태의 예술'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건축과 조경에 사용되는 예술적 요소는 사람들이기에 생태에 관해 알려 그들이 자연환경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자연과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기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존하려는 마음 또한

깨게 되고 그 방법을 찾기 된다"고 말했다.

봉화산을 상징하는 호수 중앙의 섬 봉우리에 오르면 정스의 설치 작업 '경관의 재구성(Borrowed Landscape)'을 볼 수 있다. 순천을 둘러싼 자연경관의 사전을 담은 시각 구조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자연 형상 그대로의 돌들이 그 주변에 배치된다. 이 설치물은 고해상도 사진 기술을 사용한 순천의 실제 자연 이미지를 호수 공원의 인공 지형과 중첩시킨다. 관람자는 자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풍경을 재구성하게 된다. 거시적인 실제 경관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상의 풍경에 접합하는 것은 한국 전통적 정원의 개념이다. 이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콜라주를 이용한 입체파의 재현 기법에서 영감 받은 것이기도 하다. "방문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을 재구성해 실제 경관을 예술 작품으로 인식하고 감상할 수 있고, 나아가 자연 생태의 보존 가치를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설치 작업에 담긴 정스의 논리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이라는 주제의 '자연과 인간, 지역과 세계, 나눔과 누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정원박람회장을 비롯해 수목원, 습지 조성, 국제습지센터, 건립 공사 등이 2022년 말까지 완성되고, 박람회는 2023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The Suncheon Expo is the first international gardening exposition in Korea. The 1,527,000m² site for the Eco-Park lies between the city and the bay of Suncheon. The project consists of developing a River Basin, an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and an Arboretum, apart from the Main Expo Site that houses gardens by various des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using different concepts. The primary goal of the Eco-Park is preservation of an environment, by preventing the city's intrusion towards the Suncheon Bay which is one of the five preserved coastal wetlands in the world, by creating a buffer zone for over three-million tourists who visit the bay every year. The River Basin intends to function as a lake park and to act as a reservoir for heavy rain as an attempt to prevent flooding of the lower urban area. The park is connected to the bay by the Personal Rapid Transit (PRT) system and to the urban centre by train. Bay visitors can hence be redirected to the urban area, rejuvenating the tourism industry. Other local industries like floriculture can also be expected to flourish, generating local employment and income.

Jencks' works display hybridization, as most other productions in the postmodern world. Having exposure to multivalence in literature and encountered Le Corbusier's Ronchamp chapel, he began his architectural education. He realized multivalence in twentieth-century architecture while investigating Modernism under the guidance of Sigfried Giedion in the United States and Reyner Banham in the United Kingdom. According to Jencks, even though Modernism is often considered as a monolithic movement, it is composed of plural dialectics. In late 1900, Jencks started getting involved in gardening projects

with his wife, Maggie Keswick Jencks. He describes his works using nature as Landforming. Landforming is multivalent, and is created by combining landscape, architecture, sculpture and writing. According to him, "Landforming is the art of using nature to speculate on nature... We co-create with the universe on par, fatefully engaged, different but equal, and part of a dialogue. Landforms should feature this dialogue and parity. They should show our unity with, and divergence from, the universe... My landforms and those we have designed for Suncheon City in Korea, use nature to think about the ultimate forms and laws of nature." In 2003, a coal company that did not know what to do with earth dug up for mining, commissioned a project to Jencks who explained that for such companies that had exploited nature to use resources to sustain human life, Landforming is a way to give something back to society. Jencks' lake park titled "Holding the Eco-Lin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Main Expo Site and composed of a lake with surrounding mounds, an island in the midst of the lake and an undulating bridge connecting the island to the land. It is conceived as a miniature version of Suncheon. Water represents the city's hardscape, mounds represent the mountains that surround Suncheon like Mt. Oknyeongbong and Mt. Obong, the island symbolizes Mt. Bonghwa, and the bridge linking the island to the land represents the river of Suncheon.

Eco-Line is a concept that Jencks derived from his impression of the Korean landscape. For him, the constant view of mountains is a unique feature of many Korean cities. A visual contrast between mountains and high density urban areas just next to them is a com-

mon condition in Korean cities. Namsan Park is an example of this, where a tree-covered mountain stands in the middle of the dense urban centre of buildings and highways. Jencks said, "It is where such contrast between ecology and economy shows, and wher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artefacts convene, that the Eco-Line emerges. 'Holding the Eco-Line' is to recognize that the values divided by the Eco-Line, such as ecology versus city, nature versus culture, and ecology versus Econom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rather than purely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Also, the balance between them should be sustained."

"Holding the Eco-Line" underlines Jencks design philosophy concerning ecology. Urban development can have negative influence on well-preserved natural areas like Suncheon, as architectural intervention affects nature and ecology, regardless of good intention. Although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re expected to control excessive human intervention, those are often being made and altered, not necessarily for the sake of sustainable ecology, but for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emands. Jencks opines that in such situations, architects may agree to work on a project despite moral and ecological doubts. It is thus important to establish the art of ecology, so as to affect people's attitudes and consciousness about environment, nature, and global and local ecologies. He proposes that this art can raise consciousness and make people recognize, experience and enjoy the real nature. Once people enjoy interacting with nature, they will naturally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methods of preserving natural ecology.

Jencks' intriguing design can induce people to explore the space to sense the environment in diverse ways through direct interaction. Visitors can walk around the landscape, climb up the mounds, sit on the rocks, appreciating the scenery, cross the undulating bridge to experience the landscape in a dynamic manner, and even enjoy water sports. Reaching atop Bonghwa Island, visitors can appreciate the site-specific installation called "Borrowed Landscape". Framed images of Suncheon's mountain-scape will be installed along with seating composed of rocks in their natural shape. The installation consists of high-resolution photographs of the real mountain-scape, juxtaposed with artificial landscape. It is influenced by Cubism-inspired collages by David Hockney, as well as the Korean tradition of embracing macro natural environments inside micro gardens. Visitors can look at the installation with Jencks' Landform in the background, which will induce recomposing the landscape according to individual perception. In this way, visitors can experience the reality they are already aware of, as individually recreated art pieces. It also hopes to induce a desire to preserve what they can enjoy and appreciate as art. Furthermore, the technological possibility of preservation of high-resolution photographs can incite people to contemplate on how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 benefit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The theme of the Suncheon Expo is "Garden of the earth", with auxiliary topics such as "Nature and Human", "Local and Global", "Sharing and Enjoying," etc.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ies for the exposition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12 and will remain open until October 2013 to present the four distinctive seasons of Korea.



Spirals of Time, Parco Portello, Milan, Italy, 2002-2008 [with LAND and Margherita Brianza]